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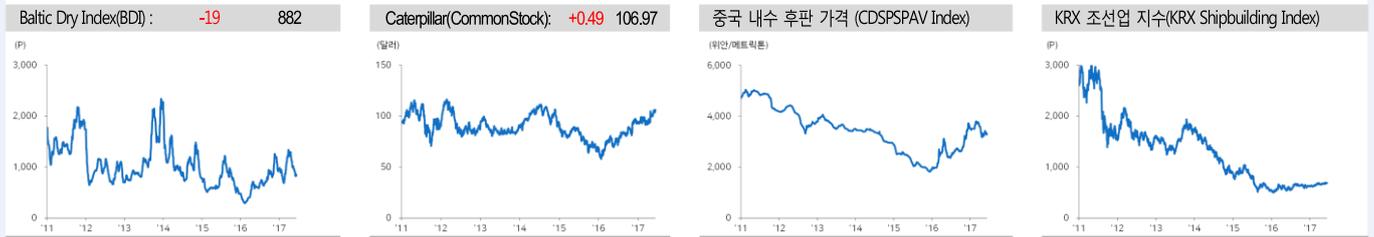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9,916.4	20.4	175,000	-0.8	0.6	11.5	26.4	34.0	76.2	0.8	0.8	2.4	1.1
현대로보틱스	4,792.1	17.8	398,000	3.0	-3.4	NA	NA	7.7	8.5	0.9	0.8	11.6	9.5
현대일렉트릭	1,161.3	8.2	313,000	0.5	2.0	NA	NA	15.0	15.5	1.4	1.2	9.1	8.1
현대건설기계	1,229.3	10.9	343,000	-0.3	14.5	NA	NA	13.6	11.8	1.5	1.3	11.1	11.4
삼성중공업	4,953.0	20.1	12,700	2.0	5.4	16.5	37.3	64.4	137.4	0.8	0.8	1.2	0.6
대우조선해양	N/A	3.8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230.0	13.8	111,500	2.3	9.9	28.2	65.9	140.6	170.5	1.0	1.0	0.7	0.6
한진중공업	501.6	4.6	4,730	5.1	14.1	28.0	40.6	-14.7	10.7	0.6	0.5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539.5	27.9	62,500	2.0	-2.0	1.5	8.9	9.5	8.4	1.6	1.4	18.7	17.5
두산건설	3,619.0	24.1	36,100	1.4	-0.1	-0.7	0.7	15.8	14.5	1.0	0.9	6.6	6.7
현대로템	1,763.8	29.2	20,750	0.5	-6.1	-1.0	14.3	39.3	26.6	1.2	1.2	3.2	4.6
하이록코리아	343.1	45.7	25,200	0.2	3.1	14.5	19.4	13.2	11.6	1.1	1.0	8.5	9.0
성광케미	307.5	13.3	10,750	0.5	-1.4	2.9	21.3	34.7	20.0	0.7	0.6	1.9	3.2
태광	270.3	17.2	10,200	0.5	11.0	9.3	23.0	38.1	21.1	0.6	0.6	1.6	2.9
두산중공업	2,262.2	11.9	21,250	1.4	-8.8	-11.1	-21.9	14.2	9.4	0.7	0.7	4.9	7.1
두산인프라코어	1,724.0	15.4	8,310	-1.7	2.5	-10.8	-5.8	10.0	8.3	0.8	0.7	8.2	9.4
두산엔진	301.6	5.2	4,340	2.4	3.0	26.5	32.1	23.7	25.5	0.5	0.5	2.3	2.1
한국항공우주산업	5,556.1	24.9	57,000	0.0	-10.8	-1.6	-14.9	22.5	18.9	3.5	3.1	16.5	17.3
한화테크윈	2,346.0	24.6	44,600	0.2	-9.3	-7.2	2.6	19.4	15.4	1.0	0.9	5.1	6.2
LG넥스원	1,612.6	19.8	73,300	-0.9	-11.2	-7.3	-8.9	19.1	14.5	2.3	2.1	13.5	15.0
태웅	519.2	3.7	25,950	-3.5	-5.6	2.2	15.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86.7	2.7	6,920	5.0	11.4	4.8	20.3	-32.2	13.8	1.7	1.5	-5.1	12.0
한국가분	295.4	17.1	6,720	2.0	3.1	0.6	11.1	26.4	25.0	0.9	0.9	3.5	3.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Japanese boxship merger remains on track

일본의 3대 선사들이 컨테이너 부문 합병을 추진하고 있음. 3사는 컨테이너 부문을 합병해 Holding Company와 Operating Company로 분할할 계획임. 각 회사가 설립되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힘. 3사의 합산 컨테이너 선대는 총 140만TEU로 세계 6위 규모임. (Tradewinds)

German boxship consolidation moves up a gear

독일 컨테이너 업계의 Consolidation이 가속화되고 있음. 최근 L&B와 Asiatic/Atlantic Lloyd가 Hanseatic Unity Chartering(HUC)에 가입함 HUC의 운영 선대는 총 233척으로 늘어남. HUC는 700~9,400TEU급의 컨테이너선 206척과 3.3~9.3만DWT급의 벌크선 27척을 운영하고 있음. (Tradewinds)

Yangzijiang inks six orders worth \$133m

중국의 Yangzijiang 조선소가 2분기 중 최대 6척, 1.33억달러 규모의 수주를 기록함. Yangzijiang은 8.2만DWT급 벌크선 3척을 확정 수주했으며 1,800TEU급 컨테이너선 3척을 옵션으로 수주함. Yangzijiang 조선소의 연간 누적 수주는 19척, 4.5억달러를 기록함. (Tradewinds)

수은, 이번주 성동조선 RG 발급 결정

성동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RG 발급 여부를 이번주 내로 결정할 계획임. 지난주 노조가 회사 경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약속서를 제출하면서 RG 발급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5월 Kyklades Maritime으로부터 11.5만DWT급 탱커 최대 7척을 수주한바 있음. (조선비즈)

법정관리 조기 졸업한 STX조선해양 "다시 출발선에서 수주에 최선"

서울회생법원이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종결을 밝힘. 법원은 지난해 11월 STX조선해양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바 있음.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조기 졸업으로 금융거래 혜택을 기대한다고 밝힘. 최근 외신을 통해 STX조선해양이 MR2 Tanker 6척의 수주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음. (조선비즈)

Kyoei Tanker adds to VLCC ordering rush

일본의 Kyoei Tanker가 자국 조선소인 Japan Marine United(JMU)에 VLCC 1척을 발주함. 인도는 2019년 3분기 예정으로 선가는 공개되지 않았음. Kyoei Tanker는 연초 자국 조선소인 Namura Shipbuilding에 동일한 선종을 발주한 바 있음.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7월 4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